

## 개인 기부자의 기부 지속에 대한 영향요인 검증\*

### — 재발사건분석의 적용 —

양성욱\*\*

#### [요약]

본 연구는 기부 지속과 관련된 연구들이 횡단적인 분석을 수행하고 있으며, 관련 요인들에 대한 연구결과 또한 서로 상이하게 나타나는 점에 주목하여 종단자료의 구축을 통해 기부 지속과 관련된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경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기부 활동 관련 정보가 포함된 한국복지패널의 2006-2015년까지 10년간의 자료를 활용하여 기부 활동에 대한 동태적 양상을 확인하고, 기부 활동이 중단과 재참여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재발사건분석(recurrent event analysis)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기부 지속 기간과 재참여까지의 소요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유사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성별, 연령, 종교, 소득, 고용상태, 거주 지역, 삶의 만족도, 자원봉사 참여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부와 자원봉사 참여의 종단적 관계는 보완적 그리고 대체적 관계가 복합적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부 중단과 재참여라는 기부 참여의 반복적 특성을 고려한 기초 연구라는 점과 이를 통해 기부자의 기부 지속과 중단 이후 기부 활동을 유도하려는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 어떠한 집단에 초점을 둘 것인지에 대한 이해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주제어: 개인 기부, 기부 지속, 기부 재참여, 재발사건분석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5B5A07920872)

\*\* 가톨릭대학교 박사

## I. 서론

사람들이 기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속하거나 중단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와 관련된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었음에도, 개인 기부자의 기부 이유와 방법은 여전히 많은 연구자의 관심사이자 도전 과제이다(Gandullia, Parciasepe and Lezzi, 2017; Okten, Osili and Özer, 2015). 기존의 연구들은 개인 기부의 중요성을 크게 두 가지로 제시한다.

첫째, 개인 기부가 지니는 복지자원으로서의 중요성이다(강철희·김유나·김수빈, 2017). 사회복지조직을 포함하는 민간 비영리 조직들은 비시장적 재화나 서비스, 공공 영역이나 영리 영역이 생산하지 못하는 공적 서비스를 생산하는 조직이다(Worth, 2009). 이러한 비영리 조직의 활동이 지니는 사회적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자원 부족과 의존성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자원 확보 방안은 꾸준히 논의되었다(Sargeant, 1999; Sargeant, West and Ford, 2004). 비영리 조직들은 정부 지원, 재단 보조금, 회비, 기업 기부 등 다양한 자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정부 지원 감소로 인해 발생하는 자원의 부족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자원 확보의 방안으로서 개인 기부의 중요성은 더욱 증가하였다(강철희·박태근·오장용, 2016; 강철희 외, 2017a; Bendapudi, Singh and Bendapudi, 1996; Okten et al., 2015; Yao, 2015). 따라서 개인 기부자들의 기부 동기를 이해하는 것은 비영리 조직이 효과적인 모금 정책과 캠페인 등 자원 확보 전략을 수립하는데 필수적인 것이 되었다(Gandullia et al., 2017; Ki and Oh, 2018).

둘째, 개인 기부가 지니는 기부 문화와 시민사회 지표로서의 중요성이다. 사회적 측면에서 기부는 기부 문화 활성화의 지표이자 사회적 건강성 및 유대감, 공동체 의식, 복지 의식 등 시민 사회 성숙도의 지표라 할 수 있다(강철희 외, 2016; 서영숙·진관훈, 2016). 즉 개인의 기부 활동은 단순한 사적 활동이 아닌 공공 영역의 주요한 부분으로 자리매김 하였다(Van Slyke and Brooks, 2005). 특히, 개인들의 기부 참여가 중요시되는 이유는 개인 기부가 전체 사회의 기부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넘어서서 사회적 결속 지표의 하나이자 사회구성원의 연대와 공존의 기틀로서 작용하기 때문이다(강철희·김유나·조주희, 2010).

이렇듯 개인 기부의 사회적 중요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최근 우리나라의 기부 경향을 살펴보면 전반적인 기부 총액의 규모는 성장하고 있지만, 개인 기부 참여 비율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기부 수준 역시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실제로 국내기부 총액을 살펴보면 2006년 8조 1,400억 원에서 2013년 12조 4,859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문예진·이상민, 2017), 개인의 평균 기부액도 2013년 19만 9천 원, 2015년 약 31만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개인의 기부 참여 비율은 2011년 34.8%, 2013년 32.5%, 2015년 27.4%로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강철희 외, 2016). 또한, 우리나라의 기부 수준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된다고 보고되는데,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기부금의 비중은 GDP 대비 0.87%로 기부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의 2%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며(현대경제연구원, 2016), 세계기부지수는 2010년 153개국 중 81위, 2016년 140개국 중 75위로 낮은 순위에 머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이용규·송용찬, 2012; Charity Aid Foundation, 2016; 문예진·이상민, 2017 재인용).

이러한 추세로 인해 최근 국내 연구들은 개인의 기부 참여와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식의 개인 기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제기한다(강철희 외, 2016; 강철희·박태근·이수연, 2017; 문예진·이상민, 2017; 오혜영, 2016). 이와 같은 새로운 개인 기부 연구 필요성의 연장선상에서 본 연구는 개인의 기부 지속 기간에 초점을 두고자 하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 기부의 정기성 혹은 지속성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이 자료의 한계로 인해 정기적 기부 참여 여부, 기부 지속 여부, 기부 지속 의사, 기부 추천 의향 등을 조사하여 실질적인 기부 지속 기간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강철희 외, 2010; 김준희, 2012; 류방·김세범, 2013; 문예진·이상민, 2017; 서영숙·진관훈, 2016; 이원준, 2014). 둘째, 기존의 연구들은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심리적 변수 등 다양한 변수들이 개인의 기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증하고 있지만, 기부 활동 자체와 기부 관련 변수의 차이로 인하여 입증 자체가 어렵기도 하며, 연구 결과도 일관적이지 않다(Webb, Green and Brashear, 2000; Ranganathan and Henley, 2008). 이러한 경향은 기부 지속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에서도 나타난다.

최근 강철희 외(2016)는 정기 기부자의 기부 지속 기간 분석함에 있어서 사건사 분석을 활용하여 기부 지속 기간의 종단적인 경향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연구자들이 밝힌 바와 같이 하나의 공공자선기관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 결과의 일반화가 어렵다는 점과 기부가 중단과 재참여를 반복하는 사건임을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이에 본 연구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중단과 재참여가 반복될 수 있는 기부 활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발사건 분석(recurrent event analysis)을 통해 기부 지속 기간을 증가시키는 요인과 기부를 중단하였다가 다시 참여하기까지의 소요시간을 단축하게 하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재발사건 분석은 발생하는 사건에 공통으로 작용하는 효과를 전제로 해서 일회적 사건만이 아닌, 2회 이상 사건이 증가하게 되는지에 초점을 두고 동일한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사 분석에 적절하다(김양진, 2013). 즉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기부 참여와 중단을 종단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어서 유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기부 지속과 중단을 종단적으로 관찰하는 연구로서 의의를 지님과 동시에 관련 요인들의 관계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기부 기간뿐만 아니라 중단 이후 재참여까지의 소요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까지 파악함으로써 기부 지속에 대해 더욱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본 연구는 기부 활동의 중단 자료를 구성하기 위해 2차 자료를 활용하여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을 포함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탐색적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 II. 선행연구 검토

### 1. 기부 지속

개인의 기부 활동과 관련된 연구들은 다양한 형태의 기부 관련 변수들을 활용 한다. 구체적으로는 기부 참여, 기부 의향, 기부 기간, 기부 횟수, 기부 금액 등 다양한 변수들을 통해 개인 기부 활동의 특성을 파악하고 있다(Ki and Oh, 2018; Verhaert and Van den Poel, 2011).

다양한 기부 관련 개념 중 기부 지속은 개인 기부자들의 장기적인 기부 활동과 상호작용이 비영리 조직의 안정적인 자원 확보에 주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강조되고 있다(강철희 외, 2016; 류방·김세범, 2013; 서영숙·진관훈, 2016; Ranganathan and Henley, 2008). 즉 비영리 조직에게 자원동원은 기부자를 찾고, 관계를 구축하고(cultivating), 안정화하는 활동으로서 기부자 발굴 못지않게 이들을 관리하고 유지하

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Courtney, 2002; 이원준, 2014 재인용). 기부 지속은 일정 기간 동안의 연속적인 기부 활동 참여를 의미하는데, 관련 연구들은 기부 지속을 개념화 하는데 있어 정기적 기부, 기부 지속성, 기부 정기성, 기부 충성도 등의 개념을 확연히 구분하지 않고 활용하고 있다(서영숙·진관훈, 2017). 최근에는 장기적인 고객과의 관계 유지를 중요하는 개념으로서 기부 충성도(donor loyalty or loyalty in giving)의 개념이 주목받기도 한다(강철희 외, 2016; 김준희, 2012).

기부 충성도는 영리 분야에서 활용 하는 고객 충성도(customer loyalty)에서 유래된 것이다(김준희, 2012). 기부 충성도는 자원 확보의 경쟁에서 비영리 조직과 기부자의 장기적인 관계를 형성, 유지함으로써 현금 기부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안정적인 확보에 활용되는 개념으로 개인들의 지속적인 기부 참여를 통해 장기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핵심적 의미라 할 수 있다(Sargeant and Jay, 2004; 강철희 외, 2016 재인용).

다수의 연구들은 기부 충성도를 측정함에 있어 자료의 조작화가 용이한 정기적 기부 활동을 활용하고 있다(강철희 외, 2016). 구체적으로 국내 연구들은 기부 충성도를 측정하기 위해 재 기부 의도, 기부 기간, 기부 지속 의사 등의 변수들을 활용하기도 한다(김준희, 2012; 서영숙·진관훈, 2016; 문예진·이상민, 2017). 그러나 기부 충성도는 행동적 차원에서 기부 금액, 기부의 권유뿐만 아니라 개인이 후원하는 기관에 대한 애착, 신뢰, 소속감 등 태도적 차원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기도 하다(강철희 외, 2016; 변은지, 2011).

이렇듯 기부 충성도는 다차원적인 개념이며 기부 지속만으로 측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본 연구에서는 기부 지속의 개념을 그대로 활용 한다. 다만,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종단적인 기부 활동의 관측 자료를 구축하여 기부 지속과 중단의 동태적 양상을 확인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다음 절에서는 기존의 경험적 연구들이 제시하는 기부 활동 및 기부 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앞서 언급했듯이, 종단적인 기부 활동 참여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에서 제시된 기부 지속과 관련된 요인들뿐만 아니라 기부 행동과 관계가 있다고 밝혀진 다양한 요인들을 분석에 포함하고자 하였다.

## 2. 기부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 1) 인구·사회학적 요인

개인 기부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Okten et al., 2015). 기존의 경험적 연구들은 개인의 기부 활동 혹은 기부 지속과 관련하여 성별, 연령, 결혼상태, 종교, 교육수준, 소득, 고용 상태, 가구원 수, 거주지역 등의 인구·사회학적 요인들과의 관계를 제시하는데, 연구결과는 비교적 일치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때로는 상반된 결과를 보고하기도 한다(Yao, 2015). 인구학적 혹은 개인적 특성이 개인의 기부 참여에 대한 이유를 모두 설명하는 것은 아니지만(Ki and Oh, 2018), 본 연구는 국내에서 종단적으로 기부 지속 기간을 관측한 연구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점 그리고 관련 변수들의 연구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점에 주목하여, 기존의 연구들에서 보고한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을 포괄적으로 고려하고자 하였다.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성별은 기부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강철휘 외, 2017b; 문진주·홍기용, 2016; 문예진·이상민, 2017; 서영숙·진관훈, 2016; Andreoni and Vesterlund, 2001; Belfield and Beney, 2000; Carter and Marx, 2007; Glanville, Paxton and Wang, 2016; Ki and Oh, 2018; Mesch, Rooney, Steinberg and Denton, 2006; Shelley and Polonsky, 2002). 여성이 남성보다 이타적이고 감정적인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부에 더 많이 참여한다는 견해는 오랫동안 제시되었으나(Krebs, 1970; Ki and Oh, 2018 재인용; Yao, 2015), 실제 경험적 연구들의 경향은 상반된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기부 참여 횟수나 기부 금액이 더 많다는 연구(Ki and Oh, 2018; Shelley and Polonsky, 2002)가 있는 반면, 남성이 보다 기부에 활발하게 참여한다는 연구도 존재하고(Marx, 2000), 성별과 기부 활동에 관계가 없음을 밝히는 연구도 있다(Yao, 2015). 기부 지속과 관련된 강철휘 외(2016)의 연구에서는 여성의 기부 지속기간이 더 짧게 나타났으나, 문예진·이상민(2017)의 연구에서는 기부 경험은 남성이, 기부 횟수는 여성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성별의 영향력은 기부 관련 변수에 따라 다른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연령과 관련하여 기존의 연구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더 많이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강철휘 외, 2017a; 강철휘 외, 2017b; 문진주·홍기용, 2016; 문예진·이상민, 2017; 서영숙·진관훈, 2016; Carter and Marx, 2007; Glanville et al.,

2016; Van Slyke and Brooks, 2005; Yao, 2015). 즉 연령이 증가할수록 소득이 안정되기 때문에 기부에 더 적극적일 수 있으며, 은퇴자들의 경우 자산을 환원하는 것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네트워크를 유지하고자 할 수 있다(Tietz and Parker, 2014). 한편, 연령의 효과가 선형적 관계가 아닐 수 있음이 제시되기도 하는데, 일정 연령까지는 기부 정기성 수준이 높아지다가 특정 시점부터 기부 정기성의 수준이 감소한다는 것이다(Landry et al., 2006; 강철휘 외, 2016 재인용). 실제로 기부 지속 기간의 생존확률을 추정한 강철휘 외(2016)의 연구에서는 약 56세까지 기부 중단 확률이 낮아지다가 그 이후부터는 중단 확률이 높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결혼 상태와 관련해서 기존의 연구들은 결혼이 주는 심리적인 안정이나, 자신뿐만 아니라 배우자라는 소득원으로 인한 안정감으로 때문에(Burgoyne, Young and Walker, 2005) 기혼자들이 미혼자보다 기부 활동이 활발할 수 있음을 보고한다(강철휘 외, 2017b; 김지혜·정익중, 2012; Andreoni, Brown and Rischall, 2003; Glanville et al., 2016; Mesch et al., 2006; Yao, 2015). 그러나 결혼 상태에 대한 연구 결과 또한 일관되지 않는데, 미혼자가 기혼자보다 더 적극적으로 기부에 참여하는 결과가 나타난 경우도 있으며(Duncan, 1999), 결혼 상태와 기부 행동 혹은 기부 지속성이 관계가 없다는 연구도 존재한다(문예진·이상민, 2017; 서영숙·진관훈, 2016; Marx, 2000).

종교 또한 기부 활동과 관련 있는 변수로 여겨지는데,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종교적 이유와 책임감(out of a sense of duty)을 지니며 이로 인해 기부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Ranganathan and Henley, 2008). 기존의 연구들은 종교 유무, 종교 활동의 참여 정도, 종교적 신념, 종교적 지위(religious status) 등 종교 관련 변수들이 기부 활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강철휘 외, 2010; 강철휘 외, 2017a; 문진주·홍기용, 2016; 서영숙·진관훈, 2016; Glanville et al., 2016; Okten et al., 2015; Ranganathan and Henley, 2008; Van Slyke and Brooks, 2005; Yao, 2015). 그러나 종교 유무와 참여의 빈도가 종교 단체에 기부 총액에 영향을 미치는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며(Hoge, 1995; Van Slyke and Brooks, 2005 재인용), 종교와 기부 지속성의 관계에 대한 국내 연구의 결과 또한 상이하다. 서영숙·진관훈(2016)의 연구에서는 종교가 기부 지속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보였으나, 문예진·이상민(2017)의 연구에서는 종교와 기부 의향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과 기부와의 관계 또한 다수의 선행 연구들에서 논의되었다. 선행 연구들은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더욱 이타적이며, 사회적 문제에 관심이 많고(Yen, 2002), 지역사회의 사회적 욕구에 민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기부 활동에 참여한다고 제시한다(Andreoni et al., 2003; Glanville et al., 2016; Mesch et al., 2006; Tietz and Parker, 2014; Yao, 2015). 경험적 연구의 결과는 대체로 교육수준과 기부 활동이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강철희 외, 2010; 강철희 외, 2017b; 문진주·홍기용, 2016), 반대로, 교육수준과 기부 행동의 관련성이 발견되지 않은 연구도 존재한다(Marx, 2000; Yao, 2015) 국내의 기부 지속성 관련 연구 중 서영숙·진관훈(2016)의 연구에서는 교육수준이 기부 지속 의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문예진·이상민(2017)의 연구에서는 기부 경험, 기부 횟수, 기부 금액에는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지만, 기부 의향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소득은 개인의 기부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변수이다. 다수의 연구는 기부자의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기부 활동 수준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고한다(문진주·홍기용, 2016; Bekkers, 2006; Van Slyke and Brooks, 2005; Yao, 2015; Yen, 2002). 예컨대, Yen(2002)은 1%의 소득의 증가가 기부 가능성을 0.38% 증가시킨다고 제시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 결과와는 다르게 소득과 기부 활동이 관련 없음을 보고하는 연구도 존재하며, 국내의 기부 지속과 관련된 연구인 문예진·이상민(2017)의 연구에서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기부 의향과 기부 횟수, 기부 금액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인 반면, 서영숙·진관훈(2016)의 연구에서는 가구 소득과 기부 횟수, 기부 지속 의향이 관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득과 기부 활동의 관계에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은 기부를 많이 하지만 중산층에서 기부가 적게 나타나는 U자형 혹은 은퇴연령과 소득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역 U자형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밝히는 연구들도 존재한다(강철희 외, 2010; Van Slyke and Brooks, 2005). 때로는 소득 유형에 따라 기부와의 관계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는데, Brooks(2002)는 노동 소득과 반대로 불로소득은 자선적 기부를 낮추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상을 정리해보면, 소득과 기부의 관계에서 독립변수인 소득과 종속변수인 기부에 대한 조작화 방식에 따라 연구 결과에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강철희 외, 2017b).

고용 상태는 안정적인 수입 확보의 기반으로서 기부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변



수라 할 수 있다(Yao, 2015). 이에 고용 상태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초점은 취업자와 미취업자의 차이였으며, 다수의 연구에서 취업자가 미취업자보다 기부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음을 보고한다(문예진·이상민, 2017; Bennett, 2003; Glanville et al., 2016). 한편, Tietz and Parker(2014)는 자영업자(self employed people)는 지역사회에 깊게 관여하고 사회적 지위를 향유하는 성향이 있으며, 지역사회와 자신들의 사업과 관련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소득자보다 자선적 기부 가능성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실제로 자영업자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 기부 총액이 많고 기부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소득과 관련성 있는 직종이 기부와 관계가 없음을 밝히는 연구 결과도 존재하며(Drollinger and Johnson, 1995), 국내의 기부 지속성 관련 연구에서도 고용 상태에 따라 기부 지속성에 차이를 발견한 연구(문예진·이상민, 2017)와 이와는 반대로 직업과 기부 지속성에 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연구(서영숙·진관훈, 2016)가 공존하고 있다.

가구 규모와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자녀가 없는 가구에서 기부 활동이 활발하다고 보고된다(강철희 외, 2017b; Yao, 2015; Yen, 2002). 이는 가족이 있는 경우 개인의 소득이 가족의 소득으로 편입되어 소비 활동에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부 활동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다(Wiepking and Mass, 2009). 그러나 경험적 연구의 결과는 엇갈리기도 하는데, 강철희 외(2017b)의 연구에서는 가구원 수가 적을수록 기부 규모가 커지는 것으로 밝혀진 반면, 박나원·박성준(2015)의 연구에서는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기부 활동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밝혀졌다(문예진·이상민, 2017 재인용).

거주지역의 규모는 개인 기부자들이 기부할 수 있는 비영리 조직 선택의 다양성 즉 밀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도심지 거주자 혹은 교외 지역의 거주자들의 기부 활동이 더 활발하다고 여겨진다(Glanville et al., 2016; Yao, 2015). 그러나 경험적 연구 결과는 일치하지 않는데, 강철희 외(2017b)의 연구에서는 광역시에 거주하는 개인들의 기부 규모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문진용·홍기용(2016)의 연구에서는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할 경우의 기부 금액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 지속 기간에 대한 강철희 외(2016)의 연구에서는 서울 거주자의 기부 중단 발생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반해, 서영숙·진관훈(2016)의 연구에서는 거주 지역과 기부 지속성의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 2) 심리적 요인

기부와 관련된 심리적 요인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은 기부 동기이다. 개인들의 기부 동기는 다양한 개념들이 제시되고 있으며, 가장 많이 언급되는 개념은 이타적 동기와 이기적 동기이다(Sargeant et al, 2004). 앞서 언급했듯이, 본 연구는 2차 자료 활용의 한계로 인해 이타적 동기와 이기적 동기를 포함, 기부 활동과 관련된 심리적 요인들을 포괄적으로 분석에 포함하지 못하고, 최근 관련 연구들에서 주목하고 있는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를 기부 관련 심리적 요인으로 활용하였다.

몇몇 연구들은 자아존중감과 자기인식 같은 심리적 요인들이 개인의 기부와 관련이 있다고 제시한다(Briggs, Landry and Wood, 2007; Gandullia et al., 2017; Sargeant et al., 2004). 개인의 기부 결정 요인으로서 자아존중감의 역할은 논의된 적이 많지 않은데, Gandullia et al.(2017)은 자아존중감의 향상, 긍정적 감정과 양심적 행동의 만족감 등 개인이 기부를 통해 얻는 편익으로 인해 자아존중감 수준과 개인의 이타적 행동이 관련 있다고 제시하였다. 즉 개인들은 자신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해 기부 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들은 빈곤, 환경, 아동, 여성, 재난과 관련된 5개의 국제 자선 조직의 기부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들이 기부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자아존중감과 기부 활동에 직접적인 관계에 대한 연구는 아니지만, 김혜숙(2008)의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 기부 동일시에, 기부 동일시는 기부 관계 지속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다수의 연구들은 기부를 포함한 개인의 자선활동이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Boenigk and Helmig, 2013; Chen, Yeh and Chang, 2014; Duun, Aknin and Norton, 2018). 예컨대, Sugden(1999)은 공공재에 대한 기부로 인해 삶의 만족이 증가하는 이유로 첫째는 기부자들이 사회적 규범을 준수했다는 생각에서 오는 만족감이며, 둘째는 자신의 자아존중감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시하였다(Okten et al., 2015 재인용). 즉 개인들의 기부 동기는 기부를 통해 얻는 편익과 관련이 있는데 이러한 개인적 유용성 중 하나가 삶의 질 혹은 삶의 만족도 향상이라는 것이다(Chen et al., 2014). 몇몇 연구들은 다양한 활동의 자선 활동이 개인의 주관적인 삶의 질과 관계가 있음을 보고한다(Harbaugh, Ulrich and Burghart, 2007; Reed II, Aquino and Levy, 2007, Dunn et al., 2018).

한편, 기부와 삶의 질의 인과관계 방향을 확인할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하는데, Liu and Aaker(2008)는 개인의 주관적 행복감과 기부 사이에 동시에 존재하는 관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즉, 행복감과 기부 사이의 상호 관계를 확인할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또한 Okten et al.(2015)은 개인 기부자들이 기부를 통해 얻는 유용성 중 하나가 삶의 만족도 증진이며, 삶의 만족도와 기부의 관계에 대한 분석이 이타적인 동기에 대한 조사의 하나로 볼 수 있다고 제시한다. 그들은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PSID) 자료를 분석하여 삶의 만족도 수준과 자선 조직에 대한 개인의 기부 활동 사이에 긍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 다른 연구로서 Özer(2014)는 개인 기부자들이 더 높은 삶의 질 수준을 보고 했으며, 삶의 질 수준이 높을수록 공공재에 기여하는 총량이 증가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기부와 삶의 질 혹은 삶의 만족도의 관계는 상호적일 가능성이 있으며, 개인의 기부 동기의 하나로서 삶의 만족도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 3) 자원봉사 경험

자원봉사와 기부의 관계는 서로 반대되는 주장과 연구가 반복되었다. 시간적 기부와 금전적 기부는 자선 활동의 영역으로서 서로를 대체한다는 대체적 관계, 반대로 자선 활동 영역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보완적 관계가 있다는 상반된 논의와 경험적 연구가 되풀이되어왔다(강철희 외, 2017a; 김지혜·정익중, 2012; Van Slyke and Brooks, 2005; Yao, 2015).

먼저 대체적 관계에 대한 이론적 설명은 개인의 효용 극대화라는 경제학적 관점으로 개인들은 시간과 금전적 기부 중 자신에게 효율적인 활동을 합리적으로 선택한다는 것이다(강철희 외, 2017a; Van Slyke and Brooks, 2005). 즉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은 자원봉사 활동을 더 많이 하고, 소득이 높은 경우 반대로 금전적 기부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원봉사 활동 시간이 증가하면 기부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강철희 외, 2017a; Duncan, 1999; Van Slyke and Brooks, 2005; Yao, 2015).

반대로 보완적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은 소비모형과 사회자본이 있다(강철희 외, 2017a). 소비모형의 설명은 개인을 순수하지 않은 이타주의자로 가정하면, 자원봉사와 기부를 통해 자신이 얻을 수 있는 편익 때문에 하나를 선택하지 않고 둘 모두에 참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Bauer, Bredtmann and Schmidt, 2013; 강철희 외, 2017a 재인

용). 사회자본의 이론에 따르면, 사회 공동체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신뢰가 구축되며, 이러한 신뢰 구축이 다양한 활동을 독려하는 순환 관계를 지닌다(Putnam, 2000; 강철희 외, 2017a 재인용). 이에 사회적 참여의 대표적 활동이라 할 수 있는 자원봉사와 기부 활동이 선택적이 아닌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강철희 외, 2017a).

경험적 연구들의 결과 역시 대체적 관계를 지지하는 연구와 보완적 관계를 지지하는 연구가 공존하고 있다. 대체적 관계를 지지하는 연구로 Duncan(1999)은 무급 자원봉사와 유급 자원봉사가 기부와 완벽하게 대체되고 있음을 발견하였고, Jones(2006)은 기부와 자원봉사의 결정 요인을 분류하고 상호 간의 배타적인 요인들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기부와 자원봉사가 대체적 관계의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유사한 형태 연구로 김지혜·정익중(2012)은 기부와 자원봉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차이가 발견되었으므로 대체적 관계를 지지하는 결과가 나타났지만, 두 활동 모두 지속적 참여가 중요하므로 지속성에 대한 분석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반면, 보완적 관계를 지지하는 경험적 연구로 Jackson, Bachmeier, Wood and Craft (1995)는 교회 내 집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른 형태의 자선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Van Slyke and Brooks, 2005 재인용). Van Slyke and Brooks(2005)는 자선적 기부와 자원봉사 사이에 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고, Yao(2015) 역시 개인들이 시간적 기부와 금전적 기부 모두에 참여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두 활동에 보완적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더욱 최근 강철희 외(2017a)는 기부금액과 자원봉사시간에 대한 토빗모형의 오차항 간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둘 간의 정적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여 보완적 관계를 지지하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기부와 자원봉사의 관계는 오랫동안 일치하지 않는 견해와 연구결과들을 보이며, 두 활동의 관계에 대한 엄밀한 검증으로서 종단적 관계를 분석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 대상 및 자료의 구성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데이터(Korean Welfare Panel Study)를 이용하여 기부 지속 기간에 대한 종단적인 분석 자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기부 지속과 중단 양상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한국복지패널은 소득계층별, 경제활동 상태별 각 인구집단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등을 파악하고 정책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본 연구의 주요 변수라 할 수 있는 가구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등 심리적 영역까지 포함하고, 지역적으로는 제주도까지, 가구유형으로는 농어촌가구까지 포함하여 전국 대표성을 지니고 있다.

다만, 한국복지패널에는 기부나 자원봉사 참여 여부, 기부 금액, 자원봉사 참여 기간에 대한 질문만 포함되어 기부 활동과 관련된 포괄적인 연구를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기부 지속에 대한 종단적인 자료의 구축이 가능하여 기부 지속을 단편적으로 파악하는 횡단적인 연구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의 2006년 1차 웨이브부터 2015년 발표된 10차 웨이브까지 10년에 걸친 종단 자료에서 가구원의 일반적 사항이 포함된 가구패널 데이터와 자원활동 참여 여부와 기부금액, 자원봉사 활동 횟수 등이 조사된 가구원 패널 데이터를 결합하여 사용하였다. 한국복지패널조사 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 1차 년도에는 총 7,072가구 14,463명의 가구원이 조사되었으며, 7차 년도에 1,800가구가 신규 패널로 추가 되었고, 2015년 10차 웨이브에서는 기존패널 4,760가구, 신규 패널 1,534가구를 포함 총 7,188가구, 16,664명의 가구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원표본 유지율은 가구 수를 기준으로 67.31%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기부 지속 관련 연구인 강철희 외(2016)와 본 연구와 동일한 자료를 활용한 문진주·홍기용(2016)의 연구에서와 같이 정기적으로 기부에 참여했을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20세 미만의 사례는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이에 최종적으로 분석에 포함된 표본 수는 20,073명이다.

## 2. 변수의 구성 및 측정

### 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기부 참여이다. 한국복지패널에는 '정기적인 기부나 자원봉사 활동 참여여부'와 '연간 기부 금액', '연간 자원봉사 활동 횟수'를 묻고 있다. 이에 기부나 자원봉사활동 참여 여부를 기부 참여로 간주하면, 두 활동 모두에 참여하는 경우와 기부 혹은 자원봉사만 참여한 경우를 구분할 수 없다. 따라서 기부 금액의 응답을 가지고 기부 참여 여부를 산출하였다. 구체적으로 기부나 자원봉사 활동 참여 여부의 보고와 교차 분석을 통해 기부나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응답하고 기부금액을 보고한 경우에는 기부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연간 기부 금액에 실제 액수를 보고한 경우 1로, 기부금액에 0이라고 응답한 경우 그리고 기부나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 0으로 하여 기부 참여의 이항 변수를 구성하였다.

### 2) 독립변수

기부 지속과 관련된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성별, 연령, 결혼상태, 종교, 교육수준, 소득, 고용상태, 가구원 수, 거주지역이 포함되었다. 성별은 남성을 0, 여성을 1로 구분하였고, 연령의 경우 역 U자형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연령과 연령제곱을 활용하였다. 결혼상태의 경우 '비해당', '유배우', '사별', '이혼', '별거', '미혼'의 6집단에서 '비해당'인 경우는 연령이 20세 이상임을 감안하여 응답 오류로 판단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고, 따라서, '유배우', '사별·이혼·별거', '미혼'의 3집단으로 변환한 뒤 '유배우'를 기준으로 2개의 더미변수를 구성하였다. 종교의 경우 있음 1, 없음 0으로 구분하고, 교육수준은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석/박사)'로 조사된 것을 각각 1~7로 구분하였다. 소득의 경우 가처분소득을 활용하였으며, 구체적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한 경상소득에서 소득세와 사회보험 부담금을 제외하고 측정되었다. 고용상태는 임금소득자를 기준으로 자영업·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 미취업자의 3개의 더미변수로 구성하였다. 가구원 수는 '귀택에 함께 살고 있는 가구원은 모두 몇 명입니까?'의 문항에 대한 응답을 사용하였다. 거주지역의 경우 '서울시', '광역시', '시', '군', '도농복합군'의 5개 구분을 서울시와 광역시를 합

친 대도시를 기준으로 중·소도시, 군·도농복합군 의 2개의 더미변수로 구성하였다.

심리적 요인에서 자아존중감은 Rosenberg의 자아존중감 척도로 측정하였다. 한국복지패널에 포함된 Rosenberg의 자아존중감 척도는 5개의 긍정적 자아존중감 문항과 5개의 부정적 자아존중감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리커트 4점 척도로(1='대체로 그렇지 않다'~ 4='항상 그렇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합산하기 위해 부정적 문항을 역코딩 하였다.

삶의 만족도는 건강, 가족의 수입, 주거환경, 가족관계, 직업, 사회적 친분관계, 여가 생활과 전반적 만족도에 대해 '매우불만족' 1 ~ '매우만족' 5로 응답한 것을 토대로 전반적 만족도를 제외하고 7개 문항의 평균을 삶의 만족도로 사용하였다.

자원봉사 경험은 종속변수인 기부 참여와 동일한 방법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자원봉사 횟수의 보고를 기초로 산출하였으며, 기부나 자원봉사 활동 참여 여부의 보고와 교차 분석을 통해 기부나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응답하고, 자원봉사 횟수를 보고한 경우에는 자원봉사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자원봉사 참여 횟수를 보고한 경우 1로, 자원봉사 횟수에 0이라고 응답한 경우와 기부나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 0으로 이항 변수를 구성하였다.

독립변수들 중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동하는 시간 변동 변수(time-varying variable)는 변수의 값 자체가 변하는 까닭에 종속 변수의 특정 값에 대한 효과는 일정하지만, 시간에 따른 효과는 변화하는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특성을 지니는 변수들은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기부 지속 기간과 중단 후 재참여까지의 소요시간에 미치는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각 변수들의 시간 변동의 비율을 살펴보고 시간 변동 변수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시간 변동 변수로 처리하여 시간에 따른 기부 지속 기간과 기부 재참여까지의 소요시간에 대한 효과를 추정할 변수들은 교육수준, 소득, 근로유형,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와 자원봉사 경험이다.



〈표 1〉 주요 변수의 측정방법

구분	변수	측정방법	
종속 변수	기부 참여	'1=참여', '0=비참여'	
독립 변수	인구·사회학적 요인	성별	'1=여성', '0=남성'
		연령	2016-조사연도
		연령 <sup>2</sup>	연령제곱
		결혼상태	'사별·이혼·별거', '미혼' 더미('유배우'기준더미)
		종교	'1=있음', '0=없음'
		교육수준	'1=무학', '2=초등학교', '3=중학교', '4=고등학교', '5=전문대학', '6=대학교', '7=대학원'
		소득	가처분소득: 경상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이전소득) - (소득세+사회보험분담금)
		고용상태	'자영업·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 '미취업자' 더미('임금근로자' 기준 더미)
		가구원 수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구원 수
	거주 지역	'중·소도시', '군·도농복합군' 더미('대도시'기준 더미)	
	심리적 요인	자아존중감	'1=대체로 그렇지 않다'~ '4= 항상 그렇다', 10개 문항 평균
삶의 만족도		'1=매우 불만족'~'5=매우만족', 7개 문항 평균	
	자원봉사 경험	'1=참여', '0=비참여'	

### 3. 분석방법

#### 1) 기부중단을 추정 : Kaplan-Meier 분석

기부 지속과 중단과 같은 사건은 발생 시간을 일정한 시간 간격(본 연구의 경우는 1년 간격)으로 집합한 후 각 시간 간격의 중간 시점에서 위험률 함수(hazard function)를 추정한다. 이를 추정할 때 모수적 분포를 가정하지 않고 자료의 순서 즉, 순위에만 의존하는 비모수적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 자료가 집단화된 경우는 생명표방법(Life-table method), 개별 자료 분석에는 Kaplan-Meier 추정량을 사용한다(강근봉, 2015). 본 연구에서는 기부의 시작이 관찰되는 사례들의 모든 기부 참여 주기에 관한 자료를 구축하고 기부중단확률(hazard rates)추정에 Kaplan-Meier 분석을 활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생존기간의 추정에는 좌측절단(left-censored) 사례의 처리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좌측절단 사례란 관찰이 시작되기 이전에 이미 사건 발생의 위험에 노

출되거나 사건을 경험한 사례를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경우 관찰이 시작 되는 1차년도 이전에 이미 기부경험이 있는 사례가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기부 참여의 종단자료와 유사한 빈곤 탈출이나 수급동태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좌측절단 사례를 제외하고 주기의 진입이 관찰되는 사례만을 대상으로 분석하는 접근을 취하는데 본 연구에서도 같은 방법을 활용하였다(안서연·구인회·이원진, 2011). 즉, 좌측절단을 하지 않고 각 사례별로 2차년도 이후에 기부 참여 경험을 보고한 시점을 기부시작시점으로 간주하였으며, 2차년도 이후 추가된 사례의 경우 진입 연도를 기부 시작 시점으로 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 2) 재발사건 분석

사건사 분석은 시간에 따른 사건의 발생에 초점을 두고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의 시간을 종속변수로 하여 사건 발생에 미치는 영향 요인들을 분석하는 데 유용한 분석 방법이다. 즉 사건사 분석은 종속변수가 특정 사건 발생시점까지의 시간(time to event)인 통계적 분석방법으로, 사건의 발생 여부뿐만 아니라 발생까지의 시간을 고려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인 기부 참여는 연구 기간 중 1회도 발생하지 않거나, 사례별로 기부 참여 후 바로 중단, 어느 정도 기부 지속 후 중단하는 등 다양한 양상을 보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종단자료에서 한 사례는 기부 참여라는 동일 사건을 여러 번 경험하며 복수의 기부 지속 기간을 가질 수 있다. 이와 같이 반복적으로 되풀이 되는 사건을 반복사건(recurrent event) 혹은 복수사건(multiple event)라고 하며,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사건사 분석을 재발사건분석(recurrent event analysis)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사건사 분석에는 모집단의 확률분포에 대해 특정 분포를 가정하고 그 가정된 분포의 모수(population parameter)에 대해 검정을 하는 모수적인 분석 방법과 모집단의 확률분포에 대해 어떠한 가정도 하지 않는 비모수적인(non-parametric)방법으로 나눌 수 있으며, 재발사건분석은 Cox 비례위험모형(Cox proportional hazard model)에 근간을 두는 분석 방법으로 후자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강금봉, 2015).

Kelly and Lim(2000)은 risk set과 time scale에 따라 Andersen and Gill(AG), Wei, Lin and Weissfeld(WLW), Prentice, Willams and Peterson, total time(PWP-CP), gap time(PWP-GT)으로 재발사건 분석의 네 가지 방법을 제시하였다(김양진, 2013

재인용). AG 모형은 모든 사건을 같은 종류로 간주하고 한 사례로부터 발생하는 각 사건들의 독립적인 증거를 분석하는데 적합하다. Wei, Lin and Weissfeld(WLW)는 주변(marginal)모형이라고 하는데, 이 모델에서는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하여 그 순차를 고려하지 않고 서로 분리되어 있는 사건으로 간주한다. Prentice, Willams and Peterson, total time(PWP-CP)은 조건부(condition) 모형이라고 하며 두 번째 사건이 발생하기 위한 조건은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나야 한다고 하는 발생 순서를 고려한 자료에 적합하고, gap time(PWP-GT)은 다음 사건이 얼마나 빨리 또는 얼마나 천천히 발생되는지 소요시간을 조사하기를 원할 때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각 사례 별로 사건의 발생 횟수 즉, 기부 참여 횟수가 어떠한지를 파악할 수 있는 AG 모형과 사건 발생 이후 다음 사건이 얼마나 빨리 발생되는지 즉, 기부 중단 이후 기부 재참여까지의 시간을 파악하기 위해 PWP-GT 모형을 활용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본 연구의 분석 누적 기간의 기술통계를 살펴보면 다음 <표 2>와 같다.

먼저 인구·사회학적 요인에서 성별은 남성이 45.27% 여성이 54.73%로 여성이 비율이 약간 더 높았다. 연령은 평균 53.25세(SD=18.34)로 나타났고, 결혼 상태는 유배우 63.73%, 사별·별거·이혼 19.66%, 미혼 16.61%의 순으로 나타났다. 종교의 경우 있는 사람이 52.70%, 없는 사람이 47.30%로 종교가 있는 사람의 비율이 약간 높았다.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28.24%, 초등학교 20.73%, 대학교 17.89%, 중학교 11.47% 등의 순을 보였고, 소득(가처분 소득)은 평균 3629.08만원(SD=3699.189)으로 소득의 차이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고용상태를 살펴보면, 미취업자가 41.82%로 가장 많았고, 임금근로자 37.69%, 자영업·고용주 15.05%, 무급가족종사자 5.45%의 비율을 보였다. 가구원 수는 평균 2.96명(SD=1.31)이었으며, 거주지역은 대도시가 43.14%, 중소도시 34.51%, 군·도·농복합군 22.35%로 대도시 거주자가 가장 많았다.

심리적 요인 중 자아존중감은 평균 3.09점(SD=0.45)으로 4점 척도인 것을 고려하면

‘그렇다’ 정도의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삶의 만족도는 평균 3.33점(SD=0.55)로 5점 척도임을 고려할 때 ‘보통’ 이상의 수준을 보였다.

〈표 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변수 구분		비율 / 평균(표준편차)	
인구·사회학적 요인	성별	남성	45.27%
		여성	54.73%
	연령	-	53.25(SD=18.34)
	결혼상태	유배우	63.73%
		사별·별거·이혼	19.66%
		미혼	16.61%
	종교	있음	52.70%
		없음	47.30%
	교육수준	무학	10.41%
		초등학교	20.73%
		중학교	11.47%
		고등학교	28.24%
		전문대학	9.35%
		대학교	17.89%
		대학원(석사/박사)	1.91%
	소득	가처분 소득	3629.08(SD=3699,189)
	고용상태	임금근로자	37.69%
자영업 고용주		15.05%	
무급가족종사자		5.45%	
미취업자		41.82%	
가구원 수	-	2.96(SD=1.31)	
거주지역	대도시	43.14%	
	중소도시	34.51%	
	군·도농복합군	22.35%	
심리적 요인	자아존중감	-	3.09(SD=0.45)
	삶의 만족도	-	3.33(SD=0.55)
자원봉사 경험		참여	95.32%
		비참여	4.68%

자원봉사 경험 자원봉사에 참여한 경우가 4.68%, 자원봉사 참여하지 않은 경우가 95.32%로 나타났고 누적이 아닌 사례별 통계로 보면 참여가 14.27%, 비참여가 85.73%로 두 기술통계 결과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지만, 자원봉사를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다수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기부 참여의 중단자료를 통해 구성된 기부 지속의 통계량을 살펴보면 연구 기간 총 9년간 기부 참여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의 비율은 80.76%로 나타났고, 한 번의 기부 참여 경험이 있는 사람은 8.73%, 2년의 기부 경험이 있는 사람은 3.88%로 나타났으며, 4년 이상의 기부 경험부터는 1%대로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연구 기간인 9년 동안 지속적으로 기부에 참여한 사람은 0.06%였다.

〈표 3〉 기부 지속 기간의 기술통계

기간	비율	누적비율
0	80.76	80.76
1	8.73	89.48
2	3.88	93.36
3	2.44	95.80
4	1.52	97.32
5	1.19	98.51
6	0.63	99.15
7	0.52	99.67
8	0.27	99.94
9	0.06	100.00
계	100.0	-

## 2. 기부중단률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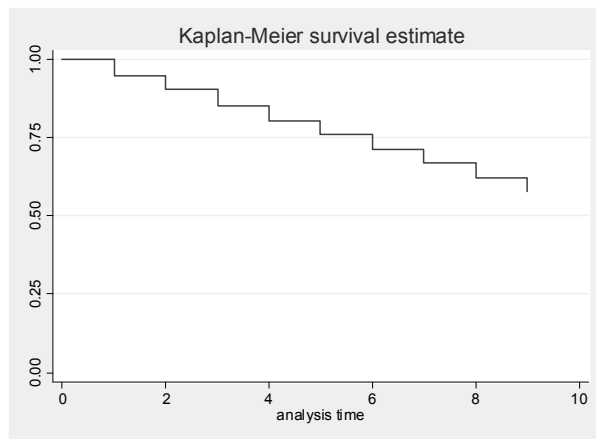
기부 지속 기관과 재참여까지의 소요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추론에 앞서, 기간별 생존율(기부 중단률)과 위험률(기부 지속률)에 대한 Kaplan-Meier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 기부 중단률과 지속률에 대한 Kaplan-Meier 분석 결과

기간	분석 대상	기부참여	중도절단※	생존율	지속율
1	13442	705	-259	0.9476	0.0019
2	12996	555	-343	0.9071	0.0025
3	12784	781	-416	0.8517	0.0030
4	12419	686	-131	0.8046	0.0034
5	11864	623	-3861	0.7624	0.0036
6	15102	948	-470	0.7145	0.0037
7	14624	974	-353	0.6669	0.0037
8	14003	916	-527	0.6233	0.0038
9	13614	948	1.3e+04	0.5799	0.0038

※ 중도절단 사례 수는 새로 유입 되는 사례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5차 년도에 중도절단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이유는 7차 년도 2012년 신규가구의 유입 때문임.

분석결과 9년 동안 한 번도 기부참여를 하지 않은 비율은 생존율 57.99%이고, 적어도 1년 이상 기부에 참여한 지속률은 0.38%로 나타났다. 지속률을 보면 굉장히 낮은 비율이지만, 기부 참여 사례 수의 증감률과 중도절단의 사례수(-)를 고려해 볼 때 기부 참여와 중단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기부 참여 대한 Kaplan-Meier 그래프

### 3. 재발사건 분석 결과

#### 1) AG 모형

재발사건 분석 중 AG 모형은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횟수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본 연구는 기부 참여 횟수를 증가 혹은 감소시키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AG 모형을 활용하였다. 기부 참여 횟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시간이 증가하는 것이며, 따라서 기부 지속 기간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분석결과 인구·사회학적 요인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기부 지속 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성의 경우가 기부 지속 기간이 짧음을 보고한 선행연구(강철희 외, 2016)와는 다른 결과이다. 연령은 기부 지속 기간을 증가시키지만, 약 49세를 기준으로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sup>1)</sup> 이러한 결과는 약 56세까지는 기부 중단 확률이 낮아지다가 이후부터는 중단사건 발생의 확률이 높아진다는 선행연구(강철희 외, 2016)와 유사하지만 감소 연령 시점에서 차이를 보였다.

결혼 상태를 보면 유배우 집단이 사별·이혼·별거 그리고 미혼 집단보다 기부 지속 기간이 길었고, 종교가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보다 기부 지속 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나 종교가 있는 사람이 기부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반대의 결과를 보였다(강철희 외, 2017a; Okten et al., 2015). 교육수준은 높을수록 기부 지속 기간이 증가하지만, 시간변동효과는 없었다. 즉 교육 수준은 전반적인 기부 지속 기간에 정(+ )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시간 경과에 따른 교육수준의 변화는 기부 기간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아니었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수준이 기부 지속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서영숙·진관훈, 2016; 문예진·이상민, 2017)를 지지한다. 한편, 소득은 기부 지속 기간을 증가시키지만 시간 변동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이 기부 지속에 역 U자형 효과가 있다는 기존 연구와 차이를 보였다(강철희 외, 2010). 고용상태의

1) 연령과 같은 연속변수를 명목변수나 서열변수와 동일한 방식으로 변수를 투입하면 변수의 효과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없다. 연령의 증가에 따른 효과가 독립적으로 추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연령의 이차항(quadratic)을 투입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Cleves, Gould, Gutierrez and Marchenko, 2010). 원변수의 계수  $b$ 와 이차항의 계수  $a$ 의 이차함수는  $ax^2 + bx$  이며, 이는  $x = -b/2a$  지점에서 함수 방향의 변화가 나타난다. 본 연구의 AG 모형 추정결과 연령의 계수는 0.130 연령의 이차항의 계수는  $-0.001$ 이며, 이를 대입하면 약  $48.6(-0.1352425/(2 \times -0.002783))$ 세가 변화 지점이라 할 수 있다. 즉, 약 49세 까지는 위험률 즉, 기부 참여 기간이 증가하지만 49세 이후에는 기부 참여 기간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경우 임금근로자와 자영업·고용주간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가족무급종사자, 임금근로자와 미취업자 사이에 기부 지속 기간의 차이를 보였다. 소득이 안정적인 집단이 보다 기부 활동에 활발하다는 연구들(문예진·이상민, 2017; Bennett, 2003; Glanville et al., 2016)과는 일치하지만, 자영업자가 고용노동자보다 참여의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Tietz and Parke, 2014)와는 차이를 보인다.

〈표 5〉 AG 모형 분석 결과

변수 구분		Coef.	Std. Err.	z	P >  z	
인구 사회학적으로인	성별(여)	.1195783	.0413519	2.89	0.004	
	연령	.1352425	.011268	12.00	0.000	
	연령 <sup>2</sup>	-.0013915	.0001132	-12.29	0.000	
	결혼 상태 (유배우)	사별 등	-.1742655	.0717631	-2.43	0.015
		미혼	-.4393251	.0719552	-6.11	0.000
	종교(있음)	-.3215596	.0351845	-9.14	0.000	
	교육수준	.3584139	.0275684	13.00	0.000	
	소득	0.00029	5.56e-06	5.21	0.000	
	고용 상태 (임금근로자)	자영업	-.0122862	.096717	-0.13	0.899
		가족무급종사자	-.5278526	.2087603	-2.53	0.011
		미취업	-.5317678	.0806026	-6.60	0.000
	가구원 수	-.0777034	.0176608	-4.40	0.000	
	거주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1198037	.0406231	-2.95	0.003
		군·도농	-.1403878	.0569899	-2.46	0.014
심리적 요인	자아존중감	.1448255	.0964901	1.50	0.133	
	삶의 만족도	.4007682	.0705853	5.68	0.000	
자원봉사 경험		2.546409	.0715882	35.57	0.000	
시간변동변수	교육수준	.0291931	.0155078	1.88	0.060	
	소득	-.0786833	.0581716	-1.35	0.176	
	고용 상태	자영업	-.0819025	.123359	-0.66	0.507
		가족무급종사자	.0066809	.0478132	0.14	0.889
		미취업	-9.31e-06	2.87e-06	-3.24	0.001
	자아존중감	.0259565	.0585303	0.44	0.657	
	삶의 만족도	.054648	.042722	1.28	0.201	
	자원봉사 경험	-.3805903	.0428425	-8.88	0.000	

Wald chi2(25) = 8681.91, Prob > chi2 = 0.0000, Log pseudolikelihood = -58357.989

또한, 고용상태의 시간 변동 효과에서는 임금근로자와 미취업자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임금근로자의 지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경우 미취업자에 비해 기부 지속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가구원 수는 적을수록 기부 지속 기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가구규모가 작을수록 기부활동에 활발히 참여한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강철희 외, 2017b; Yao, 2015; Yen, 2002). 거주지역의 경우 대도시 거주자가 중·소도시 거주자와 군·도농복합군 거주자의 기부 지속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심지 거주자의 기부활동이 더욱 활발하다는 연구들을 지지하는 것이다(Glanville et al., 2016; Yao, 2015).

심리적 요인에서는 삶의 만족도가 기부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Okten et al., 2015; ÖZer, 2014)와 유사하게 삶이 만족도가 기부 지속 기간과 정(+)적 관계를 보였지만, 시간 변동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삶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전반적인 기부 지속 기간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났지만, 삶의 만족도가 변화함에 따른 효과는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원봉사 참여는 기부 지속 기간을 증가시키지만,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기부 지속 기간을 단축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부참여와 자원봉사 참여의 관계가 보완적 관계(강철희 외, 2017a; Van Slyke and Brooks, 2005; Yao, 2015) 반대로, 대체적 관계(김지혜·정익중, 2012; Duncan, 1999; Jones, 2006)라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는 달리 두 활동의 종단적 관계는 복합적인 양상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 2) PWP-GT 모형

PWP-GT 모형은 사건발생 이후 다음 사건이 얼마나 빨리 또는 얼마나 천천히 발생하는지의 소요시간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는 PWP-GT 모형을 통하여 기부 중단 이후 기부 재참여까지의 소요시간을 단축하거나 길어지게 하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먼저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남성 보다 여성이 기부 중단 후 다시 참여할 때까지의 소요시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은 기부 중단 후 재참여까지의 소요시간을 단축시키지만, 약 49세를 기준으로 다시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상태의 경우 유배우 집단이 사별·이혼·별거 그리고 미혼 집단보다 기부 중단 이후 재참여까지의 소요시간 짧았고, 종교가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에 비해 기부 중

단 이후 기부 재참여까지의 소요시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수준은 전반적으로 기부 재참여까지의 소요시간을 단축시켰지만, 시간변동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소득은 기부 재참여까지의 소요시간을 단축시켰지만, 시간변동 효과는 없었다.

〈표 6〉 PWP-GT 모형 분석 결과

변수 구분		Coef.	Std. Err.	z	P> z	
인구 사회학적 요인	성별(여)	.1083944	.0413073	2.62	0.009	
	연령	.1326005	.011175	11.87	0.000	
	연령 <sup>2</sup>	-.0013672	.0001122	-12.19	0.000	
	결혼 상태 (유배우)	사별 등	-.1665889	.0716577	-2.32	0.020
		미혼	-.4134737	.0709392	-5.83	0.000
	종교(있음)	-.3225551	.0351608	-9.17	0.000	
	교육수준	.3587492	.0276399	12.98	0.000	
	소득	.0000293	5.57e-06	5.26	0.000	
	고용 상태 (임금 근로자)	자영업	-.018727	.0968949	-0.19	0.847
		가족무급종사자	-.5223297	.209235	-2.50	0.013
		미취업	-.5287054	.0804862	-6.57	0.000
	가구원 수	-.0738259	.0175763	-4.20	0.000	
	거주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1248128	.0405725	-3.08	0.002
		군·도농	-.1437749	.0569478	-2.52	0.012
심리적 요인	자아존중감	.1452923	.0963351	1.51	0.132	
	삶의 만족도	.3911461	.0703449	5.56	0.000	
자원봉사 경험		2.554864	.0714951	35.73	0.000	
시간변동 변수	교육수준	.0292894	.0155217	1.89	0.059	
	소득	-.0764997	.0583354	-1.31	0.190	
	고용 상태	자영업	-.0818895	.1237286	-0.66	0.508
		가족무급종사자	.0104118	.0477282	0.22	0.827
		미취업	-9.48e-06	2.86e-06	-3.31	0.001
	자아존중감	.0267174	.0584433	0.46	0.648	
	삶의 만족도	.0584537	.0426508	1.37	0.171	
	자원봉사 경험	-.3814221	.0427652	-8.92	0.000	

Wald chi2(25) = 8785.20, Prob > chi2 = 0.0000, Log pseudolikelihood = -58294.829

고용 상태의 경우 임금근로자와 자영업·고용주간의 기부 재참여까지의 소요 시간에 차이는 없었지만, 임금근로자가 가족무급종사자와 미취업자보다 기부 중단 이후 재참여까지의 소요시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용상태의 시간 변동 효과에서는 임금근로자와 미취업자에서 재참여 소요 시간에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임금근로자의 지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경우 미취업자에 비해 기부 중단 후 재참여까지의 소요시간이 단축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가구원 수는 적을수록 기부 재참여까지의 소요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의 경우 대도시 거주자가 중·소도시 거주자와 군·도농복합군 거주자에 비해 기부 재참여까지의 소요시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요인에서는 삶의 만족도가 기부 재참여까지의 소요시간을 단축시키지만, 시간 변동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자원봉사 경험은 기부 재참여까지의 소요시간을 단축시키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는 소요시간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부와 자원봉사의 종단적 관계의 복합적 양상이 기부 지속 기간에서 뿐만 아니라 기부 중단 후 재참여까지의 소요시간에서도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기부 활동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끌어 내는 것에 초점을 두는 기부 지속 관련 연구들이 횡단적 분석을 수행하고 있으며, 관련 요인들에 대한 연구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점에 주목하였다. 또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중단과 재참여가 반복될 수 있는 기부 활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발사건 분석을 통해 기부 지속 기간을 증가시키고 기부 중단 후 재참여까지의 소요시간을 단축하게 하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기부 경험 관련 정보가 포함된 한국복지패널의 2006-2015년도 10년간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기부 기간을 살펴본 결과 1년만 참여하는 사례가 8.73% 2년 참여는 3.88% 이후 3년 참여 2.44%로 지속적으로 낮아지며 전체 연구기간인 9년 동안 기부를 지속한 사례는 0.06%로 장기간 기부를 지속하는 경우가 매우 소수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기부 중단률과 지속률에 대한 분석 결과 1차 년도의 기부 생존률은 0.19%로 매우 낮

았으나, 이후 0.33%까지 높아지는 것을 볼 때 기부 시작 직후에는 기부를 그만 둘 가능성이 높지만, 일정 시점 이후에는 지속의 가능성이 조금씩은 높아지며, 기부 참여와 중단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부 지속 기간과 기부 중단 이후 재참여까지의 소요시간에 대한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성별의 경우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지속 기간이 길고, 재참여까지의 소요시간 역시 짧은 것으로 나타나 여성이 좀 더 이타적인 경향이 있다는 기존의 논의를 뒷받침 하였다(Ki and Oh, 2018; Yao, 2015). 연령은 기부 지속기간을 증가시키고, 기부 중단 후 기부 재참여까지의 소요시간을 단축시키지만, 약 49세를 기준으로 기부 지속 기간은 감소하고 재참여 소요시간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상태는 배우자가 있는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기부 지속 기간이 길고, 재참여까지의 소요시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역시, 전반적으로는 기부 지속기간을 증가시키고, 기부 중단 후 재참여까지의 소요시간을 단축시켰고, 고용상태는 임금소득자와 자영업·고용주가 가족 무급 종사자와 미취업자에 비해 기부 지속 기간이 길고 기부 재참여까지의 소요시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간 변동 효과에서도 임금소득 지위의 유지가 미취업자에 비해 기부 기간을 증가시키고, 재참여까지의 소요시간을 단축시켰다. 이러한 연령, 결혼상태, 소득, 고용상태의 분석결과는 기부 지속과 중단 후 재참여에 안정적인 경제활동이 매우 중요함을 보여주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강철희 외, 2017b; 문예진·이상민, 2017; Glanville et al., 2016).

한편, 종교가 없는 사람이 기부 지속 기간이 길고, 기부 재참여까지의 소요시간이 짧았으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기부 지속 기간을 증가하고 기부 재참여까지의 소요시간이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기부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음을 지적하는 기존 연구들을 지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강철희 외, 2017b; 서영숙·진관훈, 2016; Mesch et al., 2006; Tietz and Parker, 2014; Yao, 2015). 지역 별로는 대도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 기부 지속 기간은 길며, 기부 재참여까지의 소요시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 거주자의 기부 중단 발생 확률이 더 높다는 연구와는 차이를 보이는 결과이다(강철희 외, 2016).

삶의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기부 지속 기간을 증가시키고, 기부 재참여까지의 소요시간을 단축시키는 요인이었지만, 시간변동 효과는 없었다. 이는 삶의 만족도가 기부참여의 확률을 높인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문진주·홍기용, 2016; Okten et al., 2015;

ÖZer, 2014)와 동일한 것이기는 하지만, 삶의 만족도가 변화한다고 해서 기부를 지속하거나 재참여 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자원봉사 참여의 경우 자원봉사 경험은 기부 기간을 증가시키고 기부 재참여까지의 소요기간을 단축시키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는 지속 기간과 재참여 소요시간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부와 자원봉사 활동의 관계를 설명하는 상반되는 관점인 보완적 관계와 대체적 관계가 종단적으로는 복합적 양상을 보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자원봉사 참여가 기부 지속과 재참여에 정(+ )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원봉사 경험이 기부를 지속하고 중단 이후 다시금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요인이지만, 지속적인 자원봉사는 기부라는 또 다른 차원의 자원 활동 참여 필요성을 낮추는 요인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몇 가지 학문적, 실천적 함의를 지니고 있다. 먼저 학문적으로는 특정 시점의 기부 지속 여부가 아닌 기부 지속과 재참여와 관련된 요인들을 종단적으로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특정 시점의 기부 지속 의사 혹은 기부 기간에 기반을 두고 기부 지속에 접근해 왔다. 최근 종단적으로 기부 지속 기간에 접근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한 기관의 정기적 기부 경험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일반화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는 전국 단위의 조사를 활용하고, 기부 활동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참여와 중단 재참여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에 초점을 두고 일반적인 생존분석에서 활용되는 비례 Cox 모형이나 이산 시간 위험률 모형(discrete time hazard model)이 아닌 재발사건분석을 활용했다는 점에서 종단적인 기부 활동에 대해 더욱 실증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초적 지식을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기부 지속과 중단 후 재참여까지의 소요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유사하며, 기존의 연구와 관련 변수들의 효과가 차이가 있음을 발견한 것은 향후 기부 활동과 관련된 논의가 보다 면밀히 진행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였다. 특히, 기부와 자원봉사 활동의 관계가 보완적 관계 vs 대체적 관계로 대비되는 것이 아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복합적인 양상을 보일 수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이후 지속적인 경험적 검증과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실천적으로는 기부자의 기부 지속과 중단 이후 기부 활동을 유도하는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 어떠한 집단에 초점을 둘 것인지에 대한 이해를 제공한다. 먼저, 기부를 지속하게 하는 요인과 재참여 요인이 유사할 수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현재 기부

를 지속하고 있는 집단과 중단한 집단들이 동일한 집단이며 분리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선택과 집중 전략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둘째, 구체적으로 연령, 소득, 고용상태에 대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기부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거나 재참여 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은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소득이 존재하는 고용노동자나 자영업들이 정기적으로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독려할 필요가 있지만, 일정 연령 이상 즉, 50대 이상의 기부자들에게 지속적인 기부를 요하거나 재참여를 독려하는 것에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종교가 없는 사람이 기부 지속 기간이 길고 중단 후 재참여까지의 소요시간이 짧다는 연구결과는 기존의 기부활성화 전략으로서 지역 내 종교단체와의 관계를 개발하고 관리하는 것이 장기적인 기부 문화 형성과는 관계가 없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넷째, 삶의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이 기부에 더욱 활발하게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재정자원동원 전략과 삶의 만족 관련 프로그램이 연결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기존 기부자들의 기부 지속을 유도하는 활동으로서 삶의 만족 향상 관련 프로그램 제공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원봉사 참여의 전체효과는 정(+), 시간 변동 효과는 부(-)적이라는 연구결과는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기부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오랫동안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 사람의 경우 정기적 기부에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해온 이들에게 기부를 요구하거나 정기적 참여를 요구할 때는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학문적·실천적 함의에도 불구하고 앞서 몇 차례 언급했듯이, 본 연구는 2차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기부 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변수를 분석에 포함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예컨대, 어린 시절의 기부 참여 행동의 경험과 같은 기부 사회화 관련 변수(강철희 외, 2010), 기부 기관에 대한 신뢰, 몰입, 기관 친밀도 등 기관 관련 변수(김준희, 2012; 류방·김세범, 2013; 서영숙·진관훈, 2016), 기부 동기 공정성 인식, 계층이동인식 등 주관적 인식 관련 변수(문예진·이상민, 2017) 등 기부 활동과 관련된 주요 변수들을 포함하지 못하여 기부 활성화 전략의 세부적인 사항들을 파악할 수 없었다. 이에 기부 행동을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부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집단을 대상으로 기부를 시작한 시점, 중단에 대한 이유를 포함하여 다양한



요인들을 심층적으로 탐색하기 위한 종단적 자료의 구축이 필요하다. 동시에 기부와 자원봉사의 관계를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부 금액과 자원봉사 참여 기간이나 횟수와 같은 지속 정도의 관계에 대해서도 고찰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정량적인 연구 외에도 지속적으로 기부와 자원봉사에 참여한 경험 혹은 중단한 경험이 있는 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성적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 강금봉. 2015. “임금 근로빈곤층의 빈곤 탈출에 미치는 요인 분석: 숙련 유형을 중심으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박사학위논문(미간행).
- 강철희·김유나·조주희. 2010. “기부충성도를 지닌 인구집단 특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2(1): 205-234.
- 강철희·박태근·오장용. 2016. “정기 기부자의 기부 지속과 중단에 관한 연구-기부기간에 대한 생존분석 방법의 적용-”.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8(3): 153-175.
- 강철희·김유나·김수빈. 2017a. “기부와 자원봉사의 관계 및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Seemingly Unrelated Tobit Model 분석-”.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9(2): 29-54.
- 강철희·박태근·이수연. 2017b. “소득 수준별 기부 행동 변화에 관한 연구-자선적 기부 참여 확률 및 규모 추정-”. 『한국사회복지행정학』, 24(1): 1-31.
- 김지혜·정익중. 2012. “기부행동과 자원봉사활동은 중복적 보완관계인가? 보충적 대체관계인가?”. 『한국사회복지학』, 64(2): 133-158.
- 김준희. 2012. “개인기부자들의 관계의 질과 기부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디지털정책연구』, 10(7): 129-139.
- 김양진. 2013. 『생존분석』. 자유아카데미.
- 김해숙. 2008. “비영리조직 기부자의 관계지속의도에 영향 미치는 요인”. 전남대학교 경영학과 박사학위논문(미간행).
- 류방·김세범. 2013. “기부자의 기부동기가 기부 만족, 신뢰 및 기부지속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비영리연구』, 12(1): 63-96.
- 문예진·이상민. 2017. “공정성 인식과 계층이동 인식이 기부행위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28(2): 251-279.
- 문진주·홍기용. 2016. “개인기부에서 조세와 비조세의 영향”. 『세무와 회계저널』, 17(1): 199-220.
- 박나원·박성준. 2015. “가족관계가 기부행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27-233.
- 변은지. 2011. “사회복지조직 기부자의 충성도(Donor Loyalty)에 관한 연구 : 기부자의 인식요인과 조직의 기부자 관계관리 요인의 상호작용효과 분석”.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미간행).

- 서영숙 · 진관훈. 2016. “사회적 자본이 기부지속성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57(1): 11-138.
- 안서연 · 구인회 · 이원진. 201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탈출 결정요인: 근로능력자 집단별 분석”. 『사회복지정책』, 38(1): 199-266.
- 이용규 · 송용찬. 2012. “기부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계획된 행동이론과 동기이론 결합모형의 토대로.” 『한국행정학회학술발표논문집』, 1-18.
- 이원준. 2014. “사회복지기관 개인기부자들의 기부효용감이 기부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기관신뢰감과 자기수용감의 매개효과와 경제수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6(1): 333-361.
- 이필남 · 김경년. 2012.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 초기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교육재정경제연구』, 21(2): 87-115.
- 오혜영. 2016. “기부 경험은 즐거운 감정 동기를 강화하는가?: 정기적인 기부 경험이 기부 유형별 기부의도에 미치는 영향”. 『상품학연구』, 34(2): 149-163.
- 현대경제연구원. 2016. 『나눔의 경제학』. 현대경제연구원, 16-6(통권 679호).
- Andreoni, J. and Vesterlund, L. 2001. “Which is the fair sex? Gender differences in altruism”.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6(1): 293-312.
- Andreoni, J., Brown, E. and Rischall, I. 2003. “Charitable giving by married couples: Who decides and why does it matter?”. *Journal of Human Resources*, 38(1): 111-133.
- Bauer, T. K., Bredtmann, J. and Schmidt, C. M. 2013. “Time vs money—The supply of voluntary labor and charitable donations across Europe”.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32: 80-94.
- Bekkers, R. 2006. “Traditional and health related philanthropy: The role of resources and personality”. *Social Psychology Quarterly*, 69(4): 349-366.
- Belfield, C. R. and Beney, A. P. 2000. “What determines alumni generosity? Evidence for the UK”. *Education Economics*, 8(1): 65-80.
- Bendapudi, N., Singh, S. N. and Bendapudi, V. 1996. “Enhancing helping behavior: An integrative framework for promotion planning”. *Journal of Marketing*, 60: 33-49.
- Bennett, R. 2003. “Factors underlying the inclination to donate to particular types of charity”. *International Journal of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Marketing*,

- 8(1): 12 - 29.
- Boenigk, S. and Helmig, B. 2013. "Why Do Donors Donate? Examining the Effects of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and Identity Salience on the Relationships among Satisfaction, Loyalty, and Donation Behavior". *Journal of Service Research*, 16(4): 533-548.
- Briggs, E., Landry, T. and Wood, C. 2007. "Beyond Just Being There: An Examination of the Impact of Attitudes, Materialism, and Self-Esteem on the Quality of Helping Behavior in Youth Volunteers". *Journal of Nonprofit & Public Sector Marketing*, 18(2): 27-45.
- Brooks, A. C. 2002. "Welfare receipt and private charity". *Public Budgeting and Finance*, 22(3): 100-113.
- Burgoyne, C., Young, B. and Walker, C. 2005. "Deciding to give to charity: A focus group study in the context of the household economy". *Journal of Community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15: 383 - 405.
- Carter, V. B. and Marx, J. 2007. "What motivates African-American charitable giving: Findings from a national sample". *Administration in Social Work*, 31(1): 67 - 85.
- Charity Aid Foudation. 2016. *World Giving Index for 2016*.
- Chen, C. M., Yeh, C. Y. and Chang, C. H. 2014. "Volunteering and Life Satisfaction: An Investigation of Endogeneity". *Hitotsubashi Journal of Economics*, 55: 21 - 32.
- Cleves, M., Gould, W., Gutierrez, R. G. and Marchenko, Y. V. 2010. *An Introduction to Survival Analysis Using Stata*. Stata Press.
- Courtney, R. 2002. *Strategic Management for Voluntary Non-Profit Organisations*. Routledge, London.
- Drollinger, T. L. and Johnson, D. P. 1995. "Lifestyle, financial and attitudinal characteristics of charitable donors". *Proceeding of American Counsel on Consumer Interests*, Washington DC: 106-112.
- Duncan, B. 1999. "Modeling charitable contributions of time and money". *Journal of Public Economics*, 72: 213 - 242.
- Duun, E. W., Aknin, L. B. and Norton, M. I. 2018. "Prosocial Spending and Happiness: Using Money to Benefit Others Pay". Digital access to Schiolarship at Harvard.

- <http://nrs.harvard.edu/urn-3:HUL.InstRepos:11189976>.
- Gandullia, J. L., Parciasepe, P. and Lezzi, E. 2017. "Charitable giving and self-esteem: an experimental investigation". University of Genova. Draft version: August 2017.
- Glanville, J. L., Paxton, P. and Wang, Y. 2016. "Social Capital and Generosity: A Multilevel Analysis".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45(3): 526-547.
- Harbaugh, W. T., Ulrich, M. and Burghart, D. R. 2007. "Neural Responses to Taxation and Voluntary Giving Reveals Motives for Charitable Donations". *Science*, 316: 1622-1625.
- Hoge, D. R. 1995. "Explanations for current levels of religious giving". *New Directions for Philanthropic Fundraising*, 7: 51-70.
- Jackson, F. J., Bachmeier, M. D., Wood, J. R. and Craft, E. A. 1995. "Volunteering and charitable giving: Do religious and associational ties promote helping behavior?".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24(1): 59-78.
- Jones, K. S. 2006. "Giving and Volunteering as Distinct Forms of Civic Engagement: The Role of Community Integration and Personal Resources in Formal Helping".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35(2): 249-266.
- Kelly, P. and Lim, L. 2000. "Survival analysis for recurrent event data: An application to childhood infectious diseases". *Statistics in Medicine*, 19: 13-33.
- Ki, E. and Oh, J. 2018 "Determinants of donation amount in nonprofit membership associa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Marketing*, e1609: 1-9.
- Krebs, D. L. 1970. "Altruism: An examination of the concept and a review of the literature". *Psychological Bulletin*, 73(4): 258-302.
- Landry, C., Lange, A., List, J. A., Price, M. K. and Rupp, N. G. 2006. "Toward an understanding of the economics of charity: Evidence from a field experiment".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21: 747-782.
- Liu, W. and Aaker, J. 2008, "The Happiness of Giving: The Time-task Effect".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35: 543-557.
- Marx, J. D. 2000. "Women and Human Services Giving". *Social Work*, 45: 27-38.

- Mesch, D. J., Rooney, P. M., Steinberg, K. S. and Denton, B. 2006. "The effects of race, gender, and marital status on giving and volunteering in Indiana".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35(4): 565 - 587.
- Okten, C., Osili, U. and Özer, E. 2015. "Life Satisfaction and Charitable Giving: New Evidence from the PSID". (in prep).
- Özer, E. 2014. "Life Satisfaction and Donation to Charitable Organization". A Master's Thesis, Ihsan Dogramacı Bilkent University.
- Putnam, R. D.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Simon & Schuster.
- Ranganathan, S. K. and Henley, W. H. 2008. "Determinants of charitable donation intentions: A structural equation model". *International Journal of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Marketing*, 13: 1 - 11.
- Reed II, A., Aquino, K. and Levy, E. 2007. "A Social Identity Perspective on Giving Time vs Money". Working Paper, Wharton School, University of Pennsylvania.
- Sargeant, A. 1999. "Charitable giving: Towards a model of donor behaviour". *Journal of Marketing Management*, 15(4): 215 - 238.
- Sargeant, A. and Jay, E. 2004. *Building donor loyalty: The fundraiser's guide to increasing lifetime value*. NJ: John Wiley and Sons.
- Sargeant, A., West, D. C. and Ford, J. B. 2004. "Does perception matter?: An empirical analysis of donor behaviour". *The Service Industries Journal*, 24(6): 19 - 36.
- Shelley, L. and Polonsky, M. 2002. "Do charitable causes need to segment their current donor base on demographic factors?: An Australian examin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Marketing*, 7(1): 19 - 29.
- Sugden, R. 1999. Public goods and contingent valuation, in *Valuing environmental preferences. Theory and Practice of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in the US, EU and Developing Countries*, 131-151 (ed) Bateman, I. J, and Willis, K. G. Oxford University Press.
- Tietz, M. A. and Parker, S. C. 2014. "Charitable donations by the self-employed". *Small Business Economics*, 43(4): 899 - 916.
- Van Slyke, D. M. and Brooks, A. C. 2005. "Why do people give? new evidence and

- strategies for nonprofit managers”. *American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35(3): 199 - 222.
- Verhaert, G. A. and Van den Poel, D. 2011. “Empathy as added value in predicting donation behavior”.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64(12): 1288 - 1295.
- Wiepking, P. and Mass, I. 2009. “Resource The Make You Generous: Effects of Social and Human Resources on Charitable Giving”. *Social Forces*, 87(4): 1973 - 1995.
- Webb, D. J., Green, C. L. and Brashear, T. G. 2000.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scales to measure attitudes influencing monetary donations to charitable organizations”. *Journal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28(2): 299 - 309.
- Worth, J. M. 2009. *Nonprofit Management: Principles and Practice*. SAGE Publicationc. Inc.
- Yao, K. 2015. “Who Gives? Te Determinants of Charitable Giving, Volunteering, and Their Relationship”. *Wharton Research Scholars Journal*, 126: 1 - 33.
- Yen, S. T. 2002. “An econometric analysis of household donations in the USA”. *Applied Economics Letters*, 9: 837 - 841.

Abstract

**A Study on Individual's donation continuity**  
- Application of Recurrent Event Analysis -

**Yang, Seong - wook**

This study tried to substantively analyze the giving duration and gap time to re-participation through the construction of longitudinal data on substantive donation persistence and to empirically validate the relevant factors. Using the 10 years data from the 2006-2015 period of the Korea Welfare Panel, the dynamic aspects of the donation duration were confirmed and Recurrent event analysis was performed focusing on the possibility of repeated donations and discontinuities.

The results showed that factors affecting duration of donation and time to re-participation were similar. Specifically, gender, age, religion, income, employment status, residential areas, life satisfaction, and volunteer involvement affected giving duration and gap time to re-participation. Volunteering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 on overall giving duration and gap time to re-participation and had a negative impact on time variation. So, it is possible that the longitudinal relationship between donation and volunteering is complex.

Academically, this study has implications in constructing longitudinal data and empirically verifying the factors related to giving duration and gap time to re-participation. In practice, it provides idea that strategies for donor who discontinue donation. Especially, A person who has been volunteering for a long time are likely to feel the burden of donating. Therefor, It suggests that should be careful when ask for donations to them.

Key words: Individual donations, Donation continuity, Donation re-participation, Recurrent event analysis

[논문투고일: 2017.03.31, 심사일: 2018.05.01, 심사완료일: 2018.05.25]